“지역 염원 모아 고려왕실 동종 천흥사지로”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④ 천안 천흥사명 동종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흥사명 동종(국보 제280호)은 국내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범종 가운데 가장 큰 크기와 가장 앞선 연도를 지닌 종이다. 동시에 통일신라 범종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고려적인 요소를 보여줘 한국 범종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편년 자료이다.”

한국 최고 범종 전문가인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저서 〈한국의 범종〉을 통해 ‘천흥사명 동종’을 평가한 내용이다. 최 청장이 평가한대로 ‘천흥사명 동종’은 미술사적 가치가 남달라 1993년 국보로 지정됐다. 국내 남은 최고(最古) 고려시대 범종인 ‘천흥사명 동종’은 높이 1.68m로, 상원사 동종과 성덕대왕 신종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태조 왕건과 인연 깊은 천흥사

‘천흥사명 동종’은 본래 천안 성거산 천흥사에 있었다. 천안 성거산은 고려 태조 왕건과 인연이 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 태조 왕건이 천안 지역에 왔다가 동쪽을 보니 하늘에 오색구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신이 있는 것”이라며 제사를 지내고 ‘성거산’이라고 명명했다. 천안이라는 지명 역시 왕건이 “이곳에 성을 쌓으면 천하(天)가 편안(安)해진다”는 술사의 예방의 말에 이름을 붙였다.

왕건과 인연이 깊은 천안 성거산에는 천흥사지가 자리하며, 인근에는 천흥사가 복원돼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원(原)천흥사가 언제 지어지고 폐사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천흥사명 동종’에 ‘성거산천흥사종명통화이십팔년경술이월일(聖居山天興寺鐘銘統和二十八年庚戌二月日)’이라고 기록돼 있어 1010년(현종 1년)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천흥사 역시 이 시기를 전후로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5월 천안시가 천흥사지에 대한 2차 발굴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금당지(추정)와 함께 2호 건물지, 회랑지, 답도시설 등을 추가로 확인하며 고려시대 천흥사의 가람배치를 추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당지(추정)는 오층석탑의 서쪽 후면에 자리하고 있다. 규모는 남북 20m, 동서 18m 정도의 대형이고 정면 5칸, 측면 4칸의 구조를 보인다. 건물의 기단은 주로 중심 건물에 사용되는 ‘가구식’의 형태이며 장대석을 이용한 출입(계단)시설도 함께 조사됐다. 또한 ‘천흥(天興)’ 명문기와와 당초문 암막새, 치미 편, 고려청자 등이 수습돼 천흥사의 창건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천안시는 학술자문회의에서 “천흥사가 고려 초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충남지역 고려시대 절터 중 가장 우수하고 장엄한 최대급 규모의 절터였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단 및 계단의 조성 기법은 그동안 충남지역 고려시대 유적에서 남아 있는 기단 중 가장 우수하고 장엄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천흥사의 성격 및 가치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흥사명 동종의 고난 유랑일지

고려 초 조성돼 융성한 사세(寺勢)를 자랑했던 천흥사는 언제 폐사했을까. 정확한 폐사 기록은 없지만, 대략 조선 시기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의 태종 7년(1407) 12월 2월 기사를 보면 “지난해에 사사(寺社)를 혁파하여 없앨 때에 삼한(三韓) 이래의 대가람(大伽藍)이 도리어 태거(汰去)하는 예”를 들고, “만일 산수(山水) 좋은 곳의 대가람(大伽藍)을 택망해 폐지된 사원(寺院)에 대신”하기 위해 각 고을에 자복사를 두었으니, 직산(稷山)에는 천흥사를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1407년까지는 사찰이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 양식 계승한 고려 범종
천흥사 폐사 뒤 남한산성에 걸려
근대기 반출 박물관 소장품 전락

불교계, 충남도 중심 환수위 구성
코로나19 유행에 활동 ‘잠시 멈춤’
천흥사지 발굴조사 등 정비 추진
“지역 환수 여론 조성에 힘쓸 것”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직산현 고적 조에는 “천흥사가 성거산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돼 있어 1481년 이전에 폐사됐음을 알 수 있다.

폐사 이후 전각은 없어지고, 성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쉬이 옮길 수 없던 당간지주와 5층석탑만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불상과 불화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나 ‘천흥사명 동종’은 남한산성이 축성된 1624년(인조 2년) 이후 남한산성의 종각으로 옮겨져 시각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됐다.

남한산성에서 시각을 알리던 ‘천흥사명 동종’은 근대 시기에 박물관 소장품으로 전락한다. 1912년 이왕가박물관에서 발행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을 보면, 도판 제63호로 종의 명문과 함께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설에는 “대종은 일찍이 경기도 광주읍내 있었는데 1910년 5년 창경궁으로 옮겼다”고 기록됐다.

1938년 이왕가박물관이 덕수궁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종도 함께 자리를 옮겼다. 당시 신관 2층 중앙홀에 진열했는데 중앙에는 철조석가여래좌상이, 우측에는 석조여래좌상이, 좌측에 천흥사명 동종이 전시됐다. 해방 이후 덕수궁 이왕가박물관은 1969년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됐다.



국보 제280호 천흥사명 동종. 1010년 조성됐으나 천안 천흥사가 폐사된 뒤에는 남한산성에 걸려 시각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1910년 이왕가박물관이 매입해 박물관 소장품이 됐다.



천흥사명 동종 환수추진위원회의 현장 답사 활동 모습. 2020년 결성됐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시 활동을 멈춘 상황이다.

천흥사명 동종, 이젠 다시 제자리로

‘흥천사명 동종’은 숭유억불의 폐해가 낳은 결과다. 과도한 억불 정책은 고려왕실 사찰의 폐사를 불러왔고, 유랑길에 오른 동종을 조선왕실이 다시 사들여 박물관 소장품으로 만들었다.

현재 ‘천흥사명 동종’은 충남도 · 천안시 · 수덕사 · 천흥사를 중심으로 환지본처가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 도의원과 지역 불교계, 천안시청, 천안시문화원, 천안박물관이 중심이 돼 2020년 ‘천흥사명 동종 환수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현장답사와 관련 모임들을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멈춤’ 상태로 있다.

그나마 천안시가 ‘고려시대 문화유산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을 통해 천흥사지의 사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천안시는 2023년까지 천흥사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24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흥사지 발굴조사와 주변 환경 정비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서산 보원사지 사례처럼 환지본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지본처를 추진하는 지역 사찰과 지자체는 환지본처를 염원하는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동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천흥사 주지 성전 스님은 “천흥사명 동종은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범종이다. 이 범종이 역사의 부침 속에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다”면서 “성보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가치를 가진다. 이제는 천안 성거산 천흥사지로 동종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 활동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 대여 전시를 요청했는데 거절됐다”면서 “동종의 환지본처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모여야 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학술대회나 현장탐방 등을 통해 천흥사명 동종을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수덕사)은 “국유성보문화재의 환지본처를 위해서는 지역과 사찰이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천안시와 천흥사가 환지본처에 대한 강한 원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고려왕실 사찰 천흥사지의 위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천흥사명 동종’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를 중심으로 여러 성보문화재의 환수를 추진 중”이라며 “천안 지역 불교계와 지자체가 환수에 적극 나선다면 수덕사와 지역 말사들도 적극 연대하며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공휘 충남도국외반출문화재조사단장은 “최근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천흥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찰이었을 것이다. 이를 복원하는 데에 천흥사명 동종의 환지본처는 필수적”이라며 “추진위 활동을 다시 활성화해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교 4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연수 인증교육 [비대면 ZOOM]
■ 과 목 :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 일 정 : 2022년 8월 22일(월)~26일(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육비 : 10만원
■ 특 징 :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부동산 융합풍수학과
■ 개 강 : 2022년 9월 19일(6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 교육비 : 월 7만원
여해스님 (부산이산학회 회장,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원서교부 : 2022년 8월 부터
■ 개 강 : 2022년 9월 5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상주권공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22년 9월 6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